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열리는 입석줄다리기 행사.



지난해 열린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한국·폴란드 음악인들의 합작으로 아리랑과 쇼팽이 어우러지고 있다.

전북

흔히 가을은 고독의 계절로 일컬어진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앙상해지는 나뭇가지와 바닥에 떨어지는 나뭇잎은 길을 걷는 이의 마음에 사뭇 걸려 들었던 마음도 어느새 가라앉게 만든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여름을 돌아보며 홀로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을은 본래 한 해의 수확물을 서로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때들처럼 따뜻한 계절이기도 하다. 부드러운 햇볕과 선선한 바람. 여행을 떠나고 사람을 만나 웃음을 나누기에 이만큼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 올 가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뜻을 만난 전북의 축제를 소개한다.

가락과 리듬, 맛과 멋, 하늘과 땅... '만남' 즐기러 오세요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 10월 7일 ~ 11일

佛 상송 싱어송라이터 '잔느 웨랄' 월드뮤직 Big 파티 송창식·양희은·장필순 K-포크 파티...판소리 공연도

올해 14회째를 맞은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0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5일간의 소리축제에서는 '소리 Big Party'라는 주제로 '우리음악'과 전 세계의 음악이 한 데 비껴지며 관객을 맞이한다. 판소리와 가니발이라는 다소 흥미로운 조합이 마련된 첫 날 개막공연에서는 150여명의 음악예술인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겨움을 터뜨릴 예정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명창들과 전복도립예술단(국악단, 무용단) 등이 참여해 오랫동안 쌓인 전북의 예술혼을 실재 없이 뽐내며 속도감 있는 공연을 펼친다. 이날 예술인들은 5000석의 대형 야외공연장으로 이어진 무대동선을 따라 관객 가까운 곳에서 생생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김세미 명창이 판소리 심청가를 열창하고 있다.

순창장류축제 10월 29일 ~ 11월 1일

2015인분 비빔밥...300m 장아찌김밥 만들기 어린이 떡볶이 요리왕 선발대회 등 체험 늘려

올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된 제10회 '순창장류축제'는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읍 일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순창군은 깨끗함·재미·편리함 등을 기본 목표로 삼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순창장류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보여주기' 일변도인 많은 축제와 달리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다는 점이다. 2015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떡볶이, 300m 길이의 대형 장아찌김밥 등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만한 양의 음식을 한데 어울려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가족과 연인, 혹은 이틀모를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면 축제에 '참여'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9회 순창장류축제에서 관광객들이 2014인분의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 10월 7일 ~ 11일

1700명 함께 태극기연 날리기·그네뛰기 경연대회 '쌍룡 햇불 퍼레이드' 설화 속으로...팜스테이 운영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어우러짐을 추구하는 지평선축제는 관광객이 한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며 시름을 잊자는 들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1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10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5일 동안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무려 70가지 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전달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700여명이 동시에 태극기가 그려진 연을 날리는 퍼포먼스 행사가 준비됐다. 또 '전국 그네뛰기 경연대회'는 보는 즐거움과 뛰는 즐거움을 모두 만족시킬 예정이다. 오직 지평선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김제벽골제 축조설화인 '쌍룡과 단야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쌍룡놀이'와 '쌍룡 햇불 퍼레이드'는 관광객을 김제가 품고 있는 옛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또 임진왜란 때 김제 출신 무관인 정평구가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동력 비행기 '비거'가 선을 보이며 경연대회도 펼쳐질 예정이다. 지평선축제조직위는 벽골제 경관도로(4차선)를 개설하는 등 행사장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제 기간에 김제시는 마을 경로당과 회관을 이용, 가족단위·단체 관광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잠자리를 제공하는 팜스테이도 운영한다. 문의: 김제지평선축제기획단(063-540-3031).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전북일보 최성은 기자 <사진 제공=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지평선축제에서 김제의 고유한 지역민속설화가 담긴 쌍룡햇불놀이가 열리고 있다.

대한인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